

KOSDAQ | 교육서비스

에이렉스 (475580)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비(非)중국산 드론 수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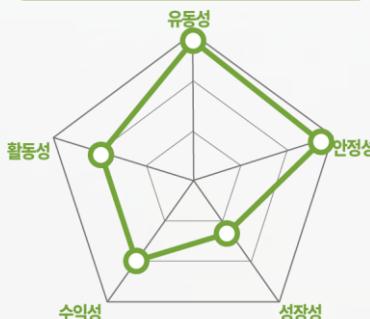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에이렉스는 코딩 교육용 로봇과 드론을 개발·제조하는 에듀테크 기업. 2024년 매출액(550억 원)은 제품(로봇·드론) 36%, 상품 8%, 용역(교육) 48%, 기타 1%. 국내 교육·공공 시장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 드론 부문은 경량 기체(<250g)를 중심으로 핵심 부품 내재화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 산업용 드론 시장 확장을 바탕으로 최근 3개년 CAGR 90% 이상 고성장 지속
- 글로벌 드론 시장은 러-우 전쟁 이후 소형·경량 기체 중심으로 재편. NDAA·Buy American 정책과 탈(脫)중국 기조 확산에 따라 비(非)중국 산 기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 에이렉스는 경량 드론 분야 핵심 부품 내재화와 대량 양산 역량을 갖춘 드론 아시아 제조사로 미 공군 교육용 드론 납품을 통해 기술·신뢰성을 확보. 2025년 미국 현지 JV 설립 및 산업형 신제품 출시로 고마진 수출 비중 확대와 장기 공급계약 확보 기대
-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671억 원(+22% YoY), 영업이익 46억 원(OMP 6.8%) 전망. 드론 수출 및 신제품 출시가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교육·용역 부문은 안정적 캐시카우 역할 지속. 2025년을 기점으로 북미 JV 가동, 해외 장기계약 가시화 시 벨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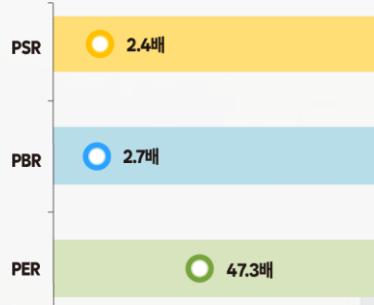


재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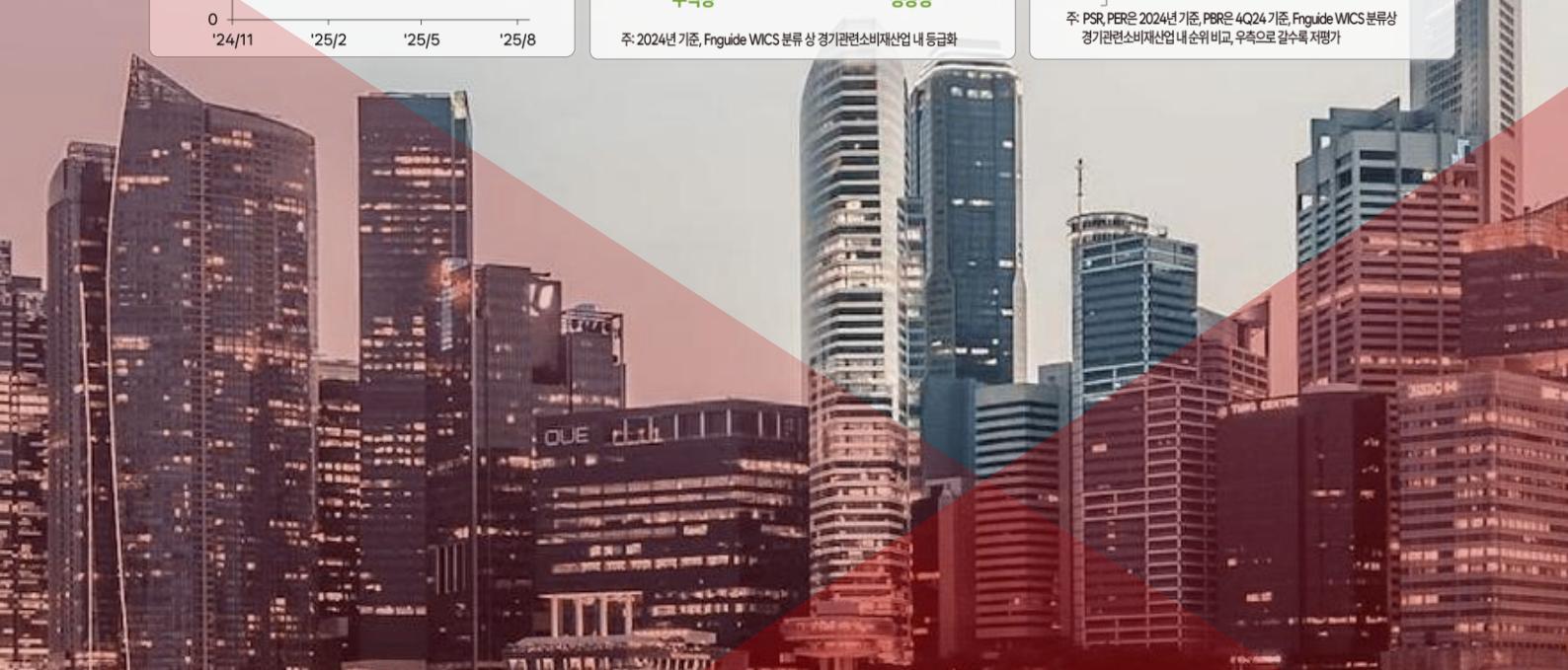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경기관련소비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CS 분류상 경기관련소비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에이렉스 (475580)

Analyst 이나연 lny1008@kirs.or.kr

KOSDAQ

교육서비스

코딩 교육용 드론로봇 기반 에듀테크 기업

에이렉스는 코딩 교육용 로봇과 드론을 자체 개발·제조하는 에듀테크 기업. 2024년 연결 매출 550억 원 중 제품(로봇·드론) 36%, 상품(교구재) 8%, 용역(교육 서비스) 48%, 기타 1%로 구성. 교육 서비스 부문은 국내 교육·공공 시장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 드론 부문은 250g 미만 경량 기체를 중심으로 FC·ESC·모터·RF 등 핵심 부품을 내재화해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 교육·훈련 영역을 넘어 정찰·보안 등 산업형 응용 시장으로 확장 추진 중

글로벌 규제 변화 속 비(非)중국산 드론 수요 확대

글로벌 드론 시장은 러·우 전쟁 이후 소형·경량 기체 중심으로 재편됨. 미국의 NDAA·Buy American 정책과 탈(脫)중국 기조 확산에 따라 비중국산 기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 중. 에이렉스는 경량 드론 분야에서 핵심 부품 내재화와 대량 양산 역량을 갖춘 드론 아시아 제조사로, 미 공군 교육용 드론 납품과 미국 보안기업 대상 실내용 정찰 드론 실증을 통해 기술신뢰성을 확보. 2025년 설립 예정인 미국 합작법인(JV)을 통해 현지화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며, 실내용 보안 드론, 장거리 감시정찰 멀티콥터 등 산업형 B2B 제품 출시로 고마진 수출 비중 확대와 장기 공급계약 확보를 기대

2025년 실적 전망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671억 원(+22% YoY), 영업이익 46억 원(OPS 6.8%)으로 전망. 교육·용역 부문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하는 외종, 외형 성장은 드론 수출 및 산업형 신제품 출시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미국 주요 고객사와 약 140억 원 규모의 산업용 드론 다년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2025년을 기점으로 북미 JV 가동, 산업형 B2B 본격 매출, 해외 장기계약 가시화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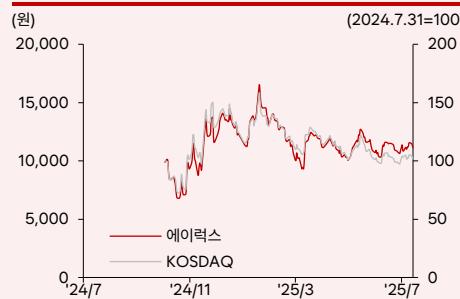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260	372	548	550	671
YoY(%)	N/A	42.8	47.6	0.4	21.9
영업이익(억원)	27	12	50	30	46
OP 마진(%)	10.2	3.3	9.2	5.5	6.8
지배주주순이익(억원)	4	19	40	28	41
EPS(원)	43	164	346	236	304
YoY(%)	N/A	277.3	111.2	-32.0	29.2
PER(배)	0.0	0.0	0.0	50.9	35.8
PSR(배)	0.0	0.0	0.0	2.6	2.2
EV/EBITDA(배)	3.2	4.5	N/A	21.7	12.3
PBR(배)	N/A	0.0	0.0	2.8	2.4
ROE(%)	-73.2	299.4	260	6.6	7.0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8/14)	10,890원
52주 최고가	16,450원
52주 최저가	6,820원
KOSDAQ (8/14)	815.26p
자본금	27억원
시가총액	1,484억원
액면가	200원
발행주식수	14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5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0억원
외국인지분율	0.56%
주요주주	이치현 외 7인
	45.81%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8	-22.9	
상대주가	-76	-28.5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벨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시의 상대적 벨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벨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회사 연혁 및 사업 구조

에이럭스는 로봇·드론 제조 기반의

에듀테크 기업

에이럭스는 2015년 11월 설립된 로봇·드론 제조 기반의 에듀테크 기업으로, 코딩 교육용 로봇과 250g 미만 경량 드론을 주력으로 개발·생산한다. 설립 초기에는 국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정책을 발판 삼아 코딩 교육 콘텐츠 시장에 진입했고, 로봇 하드웨어와 결합한 교육 솔루션을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방과후 학교, 학원 등 B2S(Business to School)와 공공기관(B2G, 늘봄학교 등)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했다.

국내 교육용 로봇 점유율 35%

교육용 드론 점유율 90%

동사의 성장 전환점은 2019년 전국 단위 코딩 교육용 로봇 보급으로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시기다. 이 시점까지 국내 교육용 로봇 시장에서 약 35%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이후 축적된 로봇 설계·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드론 사업에 본격 진출했고, 국내 교육용 드론 시장에서는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250g 미만 경량 기체 중심으로 교육·훈련 시장을 선도했다. 2022년 연 매출 372억 원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고, 2023년에는 드론 핵심 부품인 FC(Flight Controller, 비행제어장치) 내재화에 성공해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같은 해 미 공군에 교육용 드론을 납품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2024년 제품(로봇/드론) 36%

상품(교구재) 8%

용역(교육) 48%

기타 1%

2024년 에이럭스의 연결 매출액은 약 55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은 크게 제품(로봇/드론), 상품, 용역(교육), 기타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누된다.

제품 부문은 전체 매출의 36%(약 197억 원)를 차지하며, 교육용 로봇('코드론', 'TECHNIC' 등)과 250g 미만 경량 드론 등 하드웨어의 제조 및 판매가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로봇 35%(62억 원), 드론 62%(109억 원), 기타 3%(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초·중학교 코딩 및 AI 교육 정규과정 의무 도입으로 인해 공공기관과 방과후 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로봇·드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고객은 전국 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공공기관 및 교육청 중심의 기관 납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2023년 이후부터는 북미,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드론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용 외에도 정찰·보안·촬영 등 드론 응용 분야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어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상품 부문에서는 기타 교구재 중심의 매출로 전체의 약 8%(42억 원)를 차지한다. 교구재는 로봇·드론과 연계되어 교육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는 보조재로 활용되며, 패키지 납품 시 부가 매출을 형성하는 구조다. 주 고객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과 각종 교육 사업자이다.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역 부문은 2024년 연간 기준 전체 매출액의 약 48%(264억 원)를 차지한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전국 초·중등학교,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시장은 2018년 SW교육 의무화와 2025년 AI 교육 강화 정책 등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서비스 범위는 학생 대상의 SW·AI 기초·심화 교육부터

교사 연수·자격 과정, 맞춤형 실습·프로그램 위탁 운영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약 80% 이상의 계약이 매년 갱신되는 반복 수주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교육청·학교의 연간 예산 편성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확보한다. 또 한 로봇·드론·교구재를 교육 서비스와 패키지로 공급함으로써 하드웨어 매출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기타 부문은 전체의 1% 수준이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일회성 프로젝트 매출 등이 포함된다. 주요 고객은 협력사, 플랫폼 사용자, 특수 B2B 파트너 등이다.

2 에이렉스 드론 사업부

에이렉스 드론 매출은 3개년

연평균 90% 이상 성장

에이렉스의 로봇·교육서비스 부문은 내수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지만, 중장기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을 좌우할 사업은 드론 부문이다. 드론 부문의 매출은 2022년 30억 원, 2023년 54억 원, 2024년 109억 원으로 3년간 연평균 90% 이상을 기록했으며, 사업 포트폴리오 내 비중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핵심 부품 내재화, 생산능력(CAPA) 확대, 북미 등 글로벌 시장 수출 가속화에 따라 지속될 전망이다.

에이렉스는 드론 분야에서 설계, 핵심 부품 내재화, 대량 생산, 교육 솔루션 제공, 글로벌 수출까지 수직계열화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교육용 드론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훈련 및 산업·응용 시장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에이렉스의 드론 제품 포트폴리오와 각 제품군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교육용 경량 드론(250g 미만)

FC·ESC·모터 자체 개발로

경량화·내구성 확보

먼저 교육용 경량 드론(250g 미만)은 에이렉스 드론 포트폴리오의 핵심이자 시장 내 독점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제품군이다. 국내외 2,500여 개 이상의 학교, 교육청,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며, 2024년 기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등 10여 개국에 수출을 확대해왔다. 이 제품은 FC(비행제어장치), ESC,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해 무게를 4g 수준으로 줄이고, 반복 낙하·충격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했다. 또한 250g 미만 설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드론 등록 및 조종자 교육 의무가 면제되어, 글로벌 교육 시장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딩·AI 교육, 교사 연수, 방과후 교실 등에 필수 교구로 자리잡았으며, 공공 입찰 및 조달 사업을 통한 패키지 단위 대량 공급도 활발하다.

훈련·시뮬레이션 드론

2023년 미 공군 납품 레퍼런스

보유

훈련 및 시뮬레이션 드론은 조종자 면허 취득, 실전 비행 실습 등 산업·공공 영역에서 드론을 실제 운용하기 전 단계의 훈련용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다. 2023년 미국 공군 등 북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군, 경찰, 방위산업체, 드론 아카데미 등에서도 실습 및 교육용으로 채택되고 있다.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자동화 테스트 등 대량 운영 환경에 맞는 기능도 강화되어 있다.

응용 및 산업용 드론

정찰/보안/촬영 등 B2B·B2G

수요에 대응하는 신제품

응용 및 산업용 드론은 정찰, 보안, 촬영 등 B2B·B2G 수요에 대응하는 신제품 라인업이다. 미국의 홈 시큐리티 기업과의 공동 개발 등 북미 시장에서의 산업·방범 수요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드론 수출 중 90%가 산업·응용 목적의 완제품으로 공급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AI 기반 비전 시스템, 자율비행 기능을 접목한 촬영/정찰용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방산·산업용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핵심 부품 자체 설계·생산해**원가·신뢰성·차별화**

이처럼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시장 확장 전략의 중심에는 에이럭스만의 차별화된 기술 내재화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 에이럭스의 드론 경쟁력은 핵심 부품의 내재화와 소프트웨어 고도화 역량에서 비롯된다. 특히 비행제어장치(FC), ESC(전자변속기), 모터 등 드론의 주요 부품을 자체 설계·생산함으로써, 원가경쟁력과 제품 신뢰성, 기술적 차별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비행제어장치(FC, Flight Controller)는 드론의 실시간 비행 자세 제어, 배터리 관리, 모터 속도 조정 등 비행 전반을 통제하는 핵심 두뇌에 해당한다.

자체 개발 경량 FC(4g)를 적용해**원가를 10~20% 이상 절감**

에이럭스는 오픈소스나 범용 FC가 아닌, 자체 개발한 경량 FC(4g)를 적용해 연산능력과 안정성을 높이고, 대량생산 시 원가를 10~20% 이상 절감하는 효과도 달성했다. 이로써 글로벌 경쟁사 대비 드론의 비행 정밀도, 응답성, 내구성 등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ESC(전자변속기), 모터 등 구동계 부품 역시 자체 개발과 내재화를 통해 제품별 맞춤 설계, 반복 충격 및 과부하 환경에서의 내구성 강화, 다양한 크기·용도의 드론 라인업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센서 융합 및 동체 설계 기술을 통해 자이로, GPS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통합, 드론의 위치·자세·속도 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여 실내외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에이럭스는 무선통신·통합관제 기술도 내재화하고 있다. 단일 드론은 물론,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원격 제어·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대역폭 호핑 등 신뢰성 높은 통신 기술을 적용해 공공기관 및 산업 현장의 대규모 드론 운영 요구에도 대응하고 있다.

2025년 상용화 목표로 AI**비전·자율비행 고도화 중**

아울러, AI 기반 비전 인식 및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도 진행 중이다.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카메라 및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장애물 회피, 자동비행 경로 설정, 정찰·촬영 자동화 등 고부가가치 응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핵심 기술 내재화와 소프트웨어 고도화 역량을 기반으로, 에이럭스는 미국·일본 등 글로벌 규제 환경에 맞춘 현지화 제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으며, 동일 시장 내 중국산 드론 대비 신뢰성, 커스터마이즈, 유지 관리성,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 포지셔닝을 확립하고 있다.

드론 생산능력은**23년 10만대, 24년 15만대,****25년 50만대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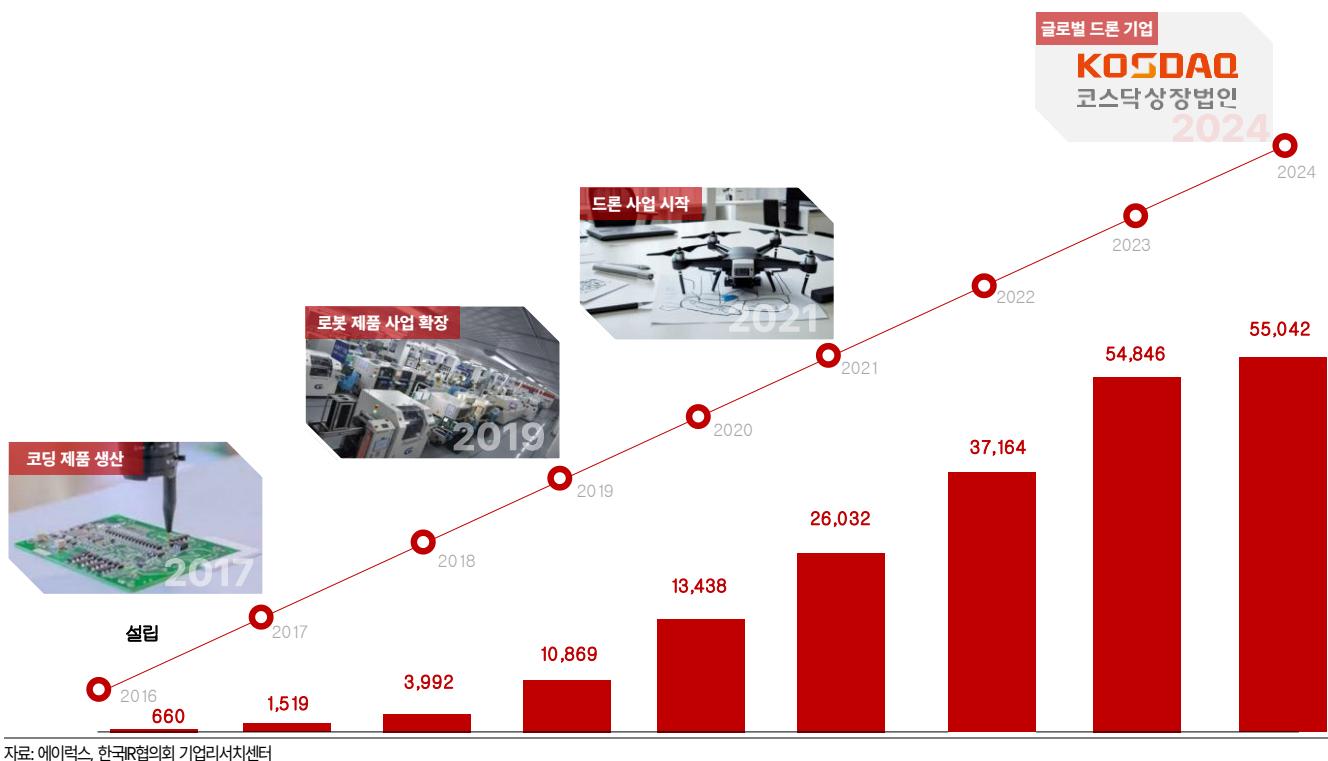
에이럭스는 인천에 위치한 본사 및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연간 수십만 대 규모의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하드웨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SMT(Surface Mount Technology) 라인과 조립 라인을 모두 자체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량 단품종 생산은 물론, 대량 양산 체계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실제 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소요되는 개발 주기를 평균 4~6개월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에이럭스의 드론 생산 능력은 2023년 기준 연간 10만 대 수준이며, 2024년에는 15만 대, 2025년에는 50만 대 까지 생산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기반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수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으며, 미 공군 납품 등 신뢰 기반의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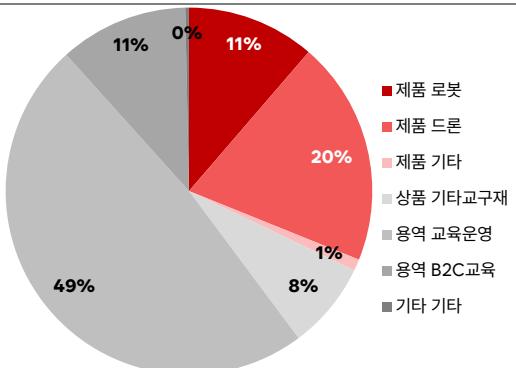
3 에이럭스 주주 현황

2025년 3월 31일 기준, 에이럭스의 총발행주식수는 13,624,900주다. 최대주주는 이치헌 대표이사로 3,238,200주 (23.77%)를 보유하고 있다. 5% 이상의 주요 주주로는 류제홍(802,175주, 5.89%)과 이승훈(695,825주, 5.11%)이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약 47.27%이다. 이 외에 한국증권금융 2.15%, 아이디브이아이피스타트 2.11%, 기타 소액주주 49.93%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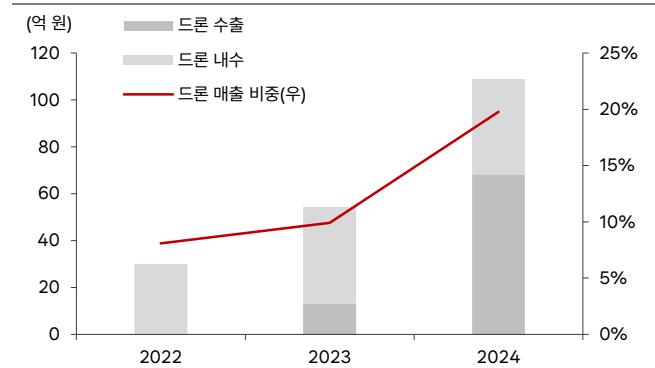
에이럭스 매출 추이(단위: 백만원)



2024년 기준 사업부문별 세부 제품별 매출



에이럭스 제품 사업부 내 드론 부문 매출 추이



에이럭스 드론 라인업 및 사업 영역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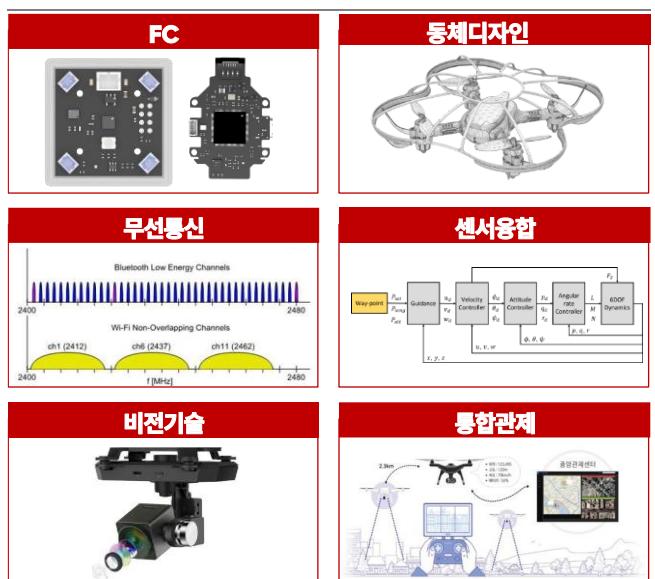
에이럭스 드론 기술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국내 경쟁력 확보)

요소기술	기체 중량			비고
	~250g	250g ~1kg	>1kg	
비행 제어기술 (FC: Flight Control)	●	●	●	비행중 자세 제어 기술 배터리, 모터 제어
센서융합 기술	●	●	●	다양한 센서들을 융합하여 정확한 포지셔닝을 추출하는 알고리즘 기술
동체디자인 기술	●	●	○	항공역학을 고려한 디자인 기술 내구성 높은 디자인 기술
무선통신 기술	●	●	○	다양한 대역대의 주파수 호핑 기술을 통한 통신 간섭 최소화 기술
통합관제 기술	●	●	○	여러대의 드론을 지상 관제소에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자율비행 기술	○	○	○	목표의 속도와 목표의 위치에 도달하는 기술
비전 기술	○	○	○	카메라를 통해 사물을 인식해서 촬영, 운행에 활용하는 기술

주: 비전 기술은 2025년 내 개발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

자료: 에이렉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이럭스 소형 드론 기술 영역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글로벌 드론 시장 현황

드론(UAS·UAV)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항공 시스템

드론(UAS·UAV)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항공 시스템으로, 기체(플랫폼), 지상통제시스템(GCS), 통신 링크, 탑재 페이로드(센서·카메라·무기·화물 등)로 구성된다. 운영 방식은 조종자가 실시간 제어하는 원격조종형과 인공지능·센서 융합 기반의 자율비행형으로 구분되며, 산업 범위는 하드웨어(기체·부품), 소프트웨어(비행제어·자율주행·데이터 분석), 서비스(항공촬영, 점검·측량, 물류, 보안, 재난 대응)로 세분화된다.

드론 활용 영역이 확대되며 글로벌

드론 산업은 '24~'30E CAGR

14.3% 전망

2020년대 들어 글로벌 드론 시장은 급격한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730억 달러에서 2030년 1,63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1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은 인공지능(AI)·머신러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경량 고성능 센서, 저전력 비행제어 시스템의 상용화가 맞물리면서 드론의 활용 영역이 산업·공공·방산 전반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인프라 점검, 농업 정밀관리, 재난 구조, 물류 배송, 군사 정찰 및 타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되면서 시장 성장의 구조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경량화·자율화 등의 기술 진보는 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규제 완화와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드론 시장 전반의 고성장을 견인할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지역별 비중은 북미 37%,

아시아·태평양 30%, 유럽 23%,

중동·아프리카 6%, 남미 4%

지역별로는 북미가 전체 시장의 약 37%를 차지하며 최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상업·공공·방산 부문 전반에서 드론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군수·치안 영역에서의 수요가 시장 성장을 견인한다. 아시아·태평양은 30%를 점유하며, 중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자용 드론 생산·수출국으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규제 완화 및 정부 주도 실증 사업을 기반으로 상업·산업용 드론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유럽은 23%를 차지하며, 농업·환경 모니터링·물류 분야에서 활용이 두드러진다. 중동·아프리카(6%)와 남미(4%)는 현재 비중은 낮지만, 인프라 점검·석유·가스 산업 수요를 중심으로 점진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 비중은 상업·산업용 34%,

방산·보안 31%, 소비자 23%,

기타 12%

부문별로는 상업·산업용 드론(Enterprise/Commercial)이 전체 시장의 약 3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다. 이 부문은 건설·에너지·물류·보안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이 수요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방산·보안(Defense & Security) 부문은 31%로 최근 전장 환경에서 소형·자비용·고 효율 기체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군수용 시장은 구조적 확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단기와 기술집약도가 높아 매출 대비 수익성이 가장 높다. 소비자용 드론(Consumer)은 23%를 차지하며, 주로 항공 촬영·취미용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기타(농업·물류 특수용 등)는 12%를 차지한다.

크기별로 소형 28%, 경량 39%,

중·대형 33%

단가는 중·대형이 높지만 성장률은

소형·경량이 두드러질 전망

드론 시장은 크기와 중량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크기별로는 소형(250g)이 28%, 경량(250g~2kg)이 39%, 중·대형(>2kg)이 33%를 차지한다. 소형 드론은 소비자·산업·군수 부문 전반에서 활용되며, 가격 경쟁력·운용 편의성·규제 유연성에서 강점을 갖는다. 경량 및 중·대형 드론은 더 큰 탑재량과 항속거리를 제공해 산업·방산용에 주로 투입된다. 특히 매출 기준으로는 대형 군수 드론이 단가가 높아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향후 성장률 측면에서는 소형 및 경량

드론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소형 드론 시장은

23년~'30E CAGR 24.2% 전망

글로벌 소형 드론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69억 달러에서 2030년 770억 달러로 성장한 CAGR 24.2%로 전체 드론 시장 성장률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드론의 주요 성장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장 활용도 확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FPV, 회복탄약, 요격 드론 등 저비용·고효율 기체가 전투 양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요국이 소형 드론을 전술 체계에 본격 편입하고 있다. 둘째, 상업·공공 수요의 동시 확대다. 규제 장벽이 낮고 운용 편의성이 높은 경량 기체는 재난 대응, 보안, 시설 점검, 농업 관리 등에서 채택이 급증하고 있다. 셋째, 기술 내재화와 비용 절감이다. 배터리, 모터, 비행제어기술 발전으로 항속거리·탑재능력이 향상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대량 양산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확산을 가속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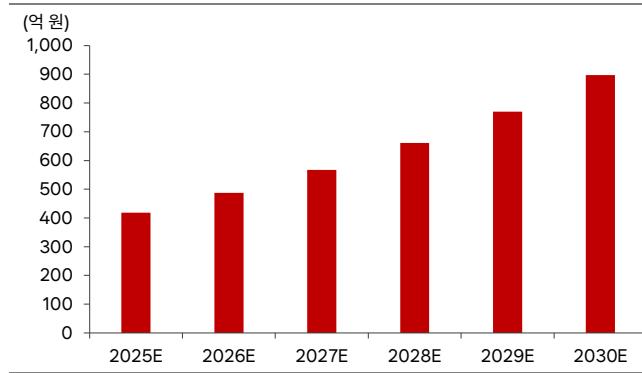
러-우 전쟁 이후 중국 중심 드론

공급망을 자국·우호국산으로

재편하는 흐름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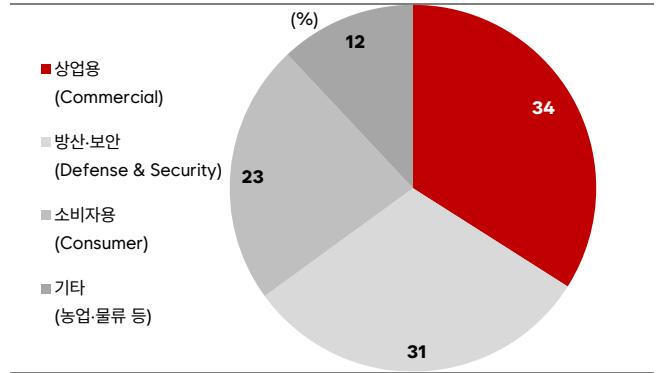
이처럼 소형 드론은 가격 경쟁력과 운용 효율성, 규제 유연성을 바탕으로 상업·공공·군수 전 영역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특히 전장 환경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국은 이를 계기로 중국산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자국·우호국산 대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드론의 무기화와 산업 구도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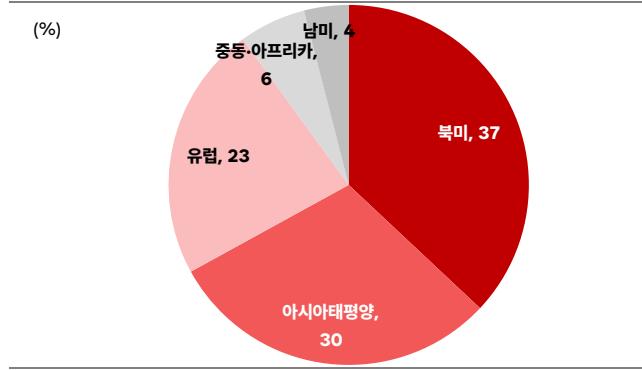
자료: Mordor 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드론 부문별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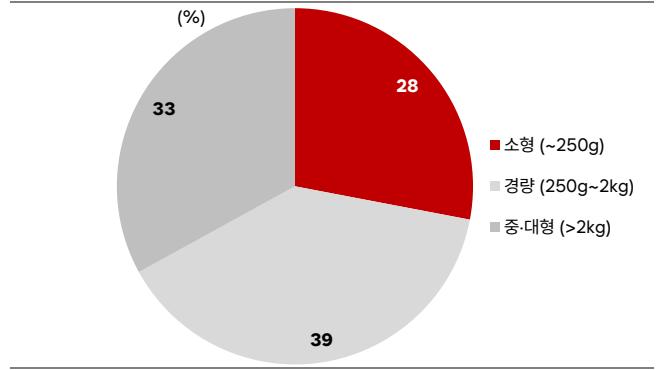
자료: Drone Industry 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드론 지역별 시장 점유율



자료: Drone Industry 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드론 사이즈별 시장 점유율



자료: Drone Industry 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② 러-우 전쟁이 촉발한 드론 패러다임 전환과 탈(脫)중국화 가속

러-우 전쟁은 소형 드론을 전술

핵심자산으로 격상시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드론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전장에서의 소형 드론 활용은 과거 정찰·보조 자산에 불과했던 UAV를 전술 핵심자산으로 격상시켰다. FPV(First Person View) 드론, 회복탄약(Loitering Munition), 드론 인터셉터 등 저비용·고효율 기체가 전투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편입되면서, 다수의 연구에서 전장 피해의 60~70%가 소형 드론에 의해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대당 약 2,500달러 수준의 FPV Sting 드론이 이란제 샤헤드(Shahed) 무인기를 요격하는 데 투입되었고, 해당 기체의 대량 양산 계획이 논의되는 등 실전에서의 효용이 입증되었다.

글로벌 드론 1위 기업은 중국의

DJI로 전세계 점유율 70% 차지

이러한 전장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 특히 중국 중심의 시장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했다. 현재 글로벌 1위 드론 기업인 중국 DJI는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 시장만 놓고 봐도 상황은 더욱 집중적이다. 소비자용 드론 시장에서 DJI를 비롯한 중국계 기업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공공용(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70% 이상, 응급 구조 분야에서는 80% 이상에 달한다.

미·중 갈등 심화, 데이터 보안

우려로 주요 국가들의 탈중국화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추진

이러한 구조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 완성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으나, 동시에 특정 국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공급망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 심화, 데이터 보안 우려, 군사·치안 분야에서의 잠재적 악용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주요국 정부는 드론 산업 내 탈(脫)중국화와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라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드론 산업은 기술·가격 경쟁에서 안보·신뢰성 경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시장 재편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NDAA를 통해 중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 구매 사실상

금지 조치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 Sec.848을 통해 연방 조달 사업에서 커버드 외국산(covered foreign) 부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중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의 구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또한 Blue sUAS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중국산 대체 산업급 드론 조달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수 주·지자체에서도 중국산 드론 조달 금지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인도는 2022년부터 상업용 드론 완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부품 제외)하고, 국내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유럽과 호주 역시 공공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기체를 배제하고 자국·우호국산으로 대체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은 수혜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짐

이 같은 공급망 재편은 시장 참여 기업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AeroVironment(AVAV, 4월 결산 기업)는 전술 드론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25 회계연도 4분기 매출(2025년 2월 1일 ~ 2025년 4월 30일)이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수주잔고는 7억 2,700만 달러로 82% 늘어났다. 이러한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AVAV 주가는 2025년 들어 연초 대비 약 70% 상승했다.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KTOS) 역시 드론 및 UCAV(무인 전투기) 수주 증가와 실적 가이던스 상향을 배경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개선되며, 2025년 들어 연초 대비 약 150% 가까이 상승했다.

전세계 드론 시장은 '비중국'

공급망을 확대하는 국면

핵심 부품 내재화 및 규제 대응

역량 갖춘 기업의 수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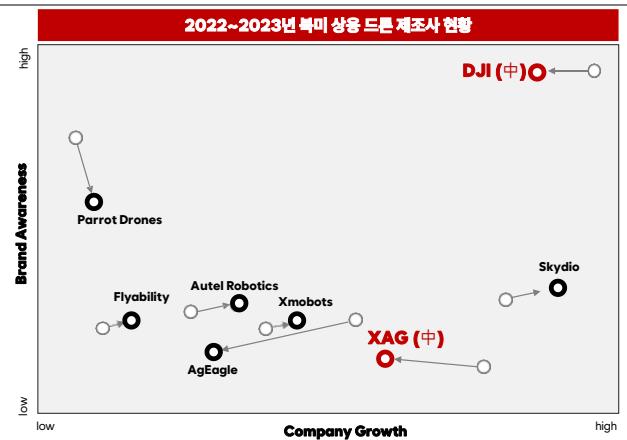
전쟁 이후 소형 전술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중국 중심의 드론 공급망 위험이 부각되면서 각국이 국산 드론과 우호국산 기체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앞으로는 기체 제작에 필요한 부품과 소프트웨어, 비행·촬영 데이터까지 자국이 직접 관리하는 '비(非)중국' 드론 공급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생산하고 각국의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미국 드론 시장 내 중국산 점유율

구분	중국산 점유율 (%)
소비자용 드론	90% 이상
산업용 드론	70% 이상
응급 구조용 드론	80% 이상

자료: 디펜스뉴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2~2023년 북미 상용 드론 제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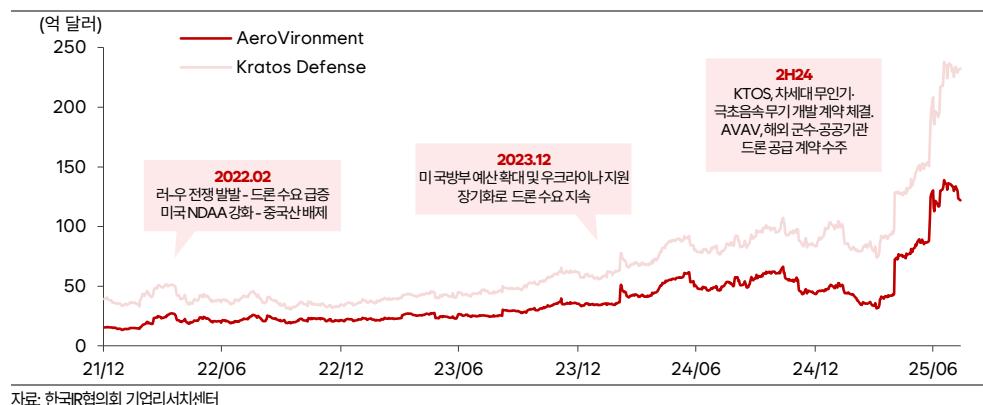
자료: 에이러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비(非)중국 드론 제조사 특징 비교

기업명	본사 국가	분야별	핵심 역량	주요 시장·활용 분야
AeroVironment	미국	방산전술	전술자폭형 드론(Switchblade), 장거리 ISR 드론, 미군동맹군 조달 중심	군사방산, 전장 정찰공격, 국방 특수 작전
Kratos Defense	미국	방산전술	UCAV(무인 전투기)-고속 타겟 드론, 극초음속 무기 관련 플랫폼	군사방산, 공군 훈련, 차세대 전투 플랫폼
ACSL	일본	방산산업	완전 일본산 공급망, 방산산업용 중대형 기체 강점	일본 정부/자체, 방산산업 분야
Skydio	미국	산업공공·	AI 기반 자율비행충돌회피, 미국 정부군 조달 인증, 북미 현지 생산	방산공공/민간, 인프라 점검 등 고부가가치 영역
Parrot Drones	프랑스	산업공공	EU 프랑스 정부 조달망, 'ANAFI' 시리즈(250g 미만~중형 기체), 유럽 내 제조	민간공공 시장, 데이터 보안 요구 충족
Autel Robotics	미국	산업공공	영상산업 점검보안 등 다목적 라인업, 가격 대비 성능 우위	대중형 드론 시장(DJI 대체 일부)
에이러스	한국	산업공공	250g 미만 소형/경량 드론 강점, 자체 Flight Controller(FC) 내재화	교육공공, 산업(보안·정찰·훈련·엔터) 확장
파블로항공(비상장)	한국	산업공공	군집조율 기술, 통합 관제 기술 기반 자체 드론 플랫폼 보유	드론 라이트소(엔터), 군집·공공안전, 배송/물류
Flyability	스위스	특수 환경	실내위험 환경 점검 특화, 충격 방지 케이지 특허	발전소·탄광·산업설비 점검 등 특수 환경
AgEagle	미국	특수 환경	농업·정밀지도 제작용 드론, 센서데이터 분석 플랫폼	농업 데이터 분석/관리, 정밀 농업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방산 드론 기업의 시가총액 추이와 주요 이벤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규제 변화가 만든 기회

한국 드론 산업은 글로벌 점유율

3% 내외 수준

한국 드론 산업은 약 1.1조 원 규모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가운데, 한국은 미국·일본에 이어 후발 주자 위치에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탈중국 조달 정책 강화, 러·우 전쟁 이후 군수 수요 급증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경로가 열리고 있다.

정부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산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는 178억 원 규모의 '드론 실증도시' 사업과 상용화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5월에는 347개 기관이 참여하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IA)'가 출범했다. 특히 DIA는 5대 완성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완성체·부품·소프트웨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해외 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는 글로벌 조달 환경이 중국산 대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과 맞물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반이 된다.

국내 드론 산업은 교육·공공

중심에서 산업·방산으로 성장축

이동

국내 드론 산업의 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간은 교육·공공 중심 수요가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최근에는 산업·방산 부문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러·우 전쟁 이후 소형·경량 드론의 전장 적용성이 입증되면서, 저비용·분산성·유연성을 강점으로 한 FPV·정찰·타격 드론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국내산 드론 해외 수출 규모는 2024년 기준 2,754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7.4% 증가했으며, 이 중 약 42.3%가 미국에 수출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인도 등 주요국의 중국산 드론 배제 정책은 국산 부품 기반 소형 군수·준군수용 드론의 해외 시장 진입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러한 수요 구조 변화는 국내 산업 구조와 맞물려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한국 드론 산업은 대형 방산업체와 전문 중소기업이 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형사는 중·대형 UAV와 통합체계 개발·운용 경험을, 중소 전문사는 Flight Controller(FC), Electronic Speed Controller(ESC), 모터, 통신 링크, 펌웨어 등 핵심 부품의 자체 설계·양산 역량을 보유한다. 이러한 부품 내재화 능력은 원가 경쟁력뿐 아니라 NDAA 등 부품 출처 규제가 엄격한 해외 조달 시장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드론 산업은 글로벌 점유율이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부품 내재화 기반 기술력, 교육·공공 분야에서 축적된 신뢰도, 소형 전장 드론 기술 경쟁력을 결합할 경우, 중국 중심 공급망 재편과 방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 점유율 확대와 시장 입지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소형 드론 부품 내재화 및 양산 체계 확보 기업

경량·비중국산 드론의 구조적

수요가 본격화

에이럭스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소형 드론 핵심 부품의 자체 개발과 양산 체계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다. 소형 드론은 일반적으로 250g 이하 경량 기체로, 교육·레저·실내 비행에 적합하며, 규제 회피성과 조작 안전성을 바탕으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 교육시장과 공공 부문에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FAA는 2023년부터 250g 이상 드론에 원격식별(Remote ID) 장치 부착을 의무화했고, 미국 NDAA 규제는 연방·주·지방정부 조달에서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피할 수 있는 경량·비중국산 드론의 구조적 수요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4.5g 초소형 All-in-One FC를

포함해 FC·ESC·모터·RF를

내재화해 제조원가를 경쟁사대비

90%까지 절감

에이럭스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비행제어기(FC)·속도조절기(ESC)·모터·RF 통신 모듈 등 핵심 전장 부품을 모두 내재화했다. 특히 4.5g급 초소형 FC는 글로벌 주요 상용품(DJI·픽스호크)의 40~50g 대비 무게를 90% 이상 경량화했으며, MCU·IMU·기압 센서뿐 아니라 RF 모듈·지자계·토터·페리드 드라이버까지 All-in-One 설계로 통합했다. 가격 경쟁력도 뛰렷하다. DJI·픽스호크의 동급 FC 제조원가는 \$150~\$400 수준인 반면, 에이럭스는 \$7~\$25로 83~98% 절감이 가능하다. 이처럼 단가·무게·기능 통합 측면에서 모두 경쟁사 대비 우위를 갖춘 사례는 글로벌 소형 드론 제조사 중에서도 드물다.

2025년 연간 50만대 생산 역량

확보해 글로벌 B2B 발주처의 요구

역량에 충족할 수 있음

생산 역량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에이럭스는 인천 본사에 SMT 라인과 드론 조립라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연간 생산 가능 물량은 약 10만 대, 2024년에는 15만 대, 2025년에는 연간 50만 대 생산 체계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일본 등 B2B 발주처가 요구하는 품질관리, 납기 신뢰성, 물량 대응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실제로 미국 공군과 보안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 납품 및 본계약 체결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형 드론을 이와 같은 양산 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무엇보다 전장 및 산업 시장은 빠르고 많이, 같은 품질로 공급하는 능력이 관건이어서 선제적으로 구축한 양산 체계가 곧 단가 경쟁력과 납기 신뢰로 이어지고 대형 조달과 장기 계약 수주 가능성을 높인다.

내재화 기반 양산 구조는

1)원가 경쟁력

2)보안성과 커스터마이징

3)기술 확장성

에이럭스의 내재화 기반 양산 구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첫째, 원가 경쟁력이다. 자체 설계·생산을 통해 중간 유통마진과 외주 비용을 제거하며 단기를 낮추고, 대량생산 기반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실제로 원가율은 2023년 68.5%에서 2024년 59.8%로 개선됐다. 둘째, 보안성과 커스터마이징 역량이다. 부품 원산지·회로 구성·펌웨어 로직을 직접 관리해 NDAA 등 수출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고객사별 맞춤형 제품 설계가 가능하다. 셋째, 기술 확장성이다. 자율비행 알고리즘(FC), 영상전송 모듈(RF) 등 핵심 기술을 자체 보유해 정찰·보안·산업형 드론으로의 응용이 용이하며, 장기적으로 통합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향후 북미 JV 설립 및 글로벌

OEM 수주 확대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기대

이러한 경쟁력은 에이럭스를 소형 드론 시장에서 내재화 기반 ODM/OEM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특히 NDAA 규제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퇴출되는 환경은 대체 공급자로서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북미 JV 설립과 글로벌 OEM 수주 확대가 가시화될 경우, 기업 가치는 단계적으로 레벨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럭스 드론 핵심부품(FC) 내재화

항목	글로벌 경쟁사 (DJI / 퍽스홍크)	ALUX	비고	ALUX FC
무게	40~50g	4.5g	90% ↓	
성능	MCU, IMU, 기압, RF, 자자계, 모터/파워 드라이버		All in One	
제조원가	\$150~400	\$7~25	83~98% ↓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드론 양산 시설 현황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② 미국 수출 레퍼런스 기반 해외 성장 가속화 기대

북미 중심 글로벌 진출 전략

에이럭스는 북미를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생산 완제품 수출을 넘어, 정책 기반 수요와 NDAA 규제에 따른 대체 수요를 선점하고, 현지 인증·조립·A/S·고객 맞춤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용 드론 중심의 B2G·B2B 모델에서 정찰·방범 등 산업형 B2B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장기 로드맵을 실행 중이다.

미 공군, 미국 보안기업 등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드론 수출 매출의 약 90%가
미국에서 발생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2023년 미 공군에 약 1만 대 규모의 교육용 초소형 드론을 공급하며 NDAA 인증 요건, 영상 안정성, 조종 응답성 등 까다로운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고, 2024년에는 미국 보안기업과 실내 순찰용 소형 정찰 드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반기 중 홈 시큐리티용 초경량 드론 개발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실적은 2023년 13억 원이던 드론 수출 매출을 2024년 65억 원으로 끌어올렸으며, 현재 수출 매출의 약 90%가 미국향이다. 이처럼 조기 수주와 납품 경험은 반복 발주와 레퍼런스 효과로 이어져, 향후 산업용 프로젝트 입찰 진입 장벽을 낮출 전망이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소수 업체만
가능한 NDAA 인증 대량 공급

미국 연방정부는 2024년부터 DJI 등 중국산 드론을 공공 조달에서 전면 배제했고, 지방정부·교육청·공공기관도 NDAA 적합 모델 구매를 권고하고 있다. 과거 중국산이 80% 이상 점유하던 소형 드론 시장에서, NDAA 인증과 대량

조건을 충족

공급 능력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 에이럭스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몇 안 되는 아시아 제조사로, 특히 250g 미만 초경량 기체를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역량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2025년 미국 합작법인(JV)**설립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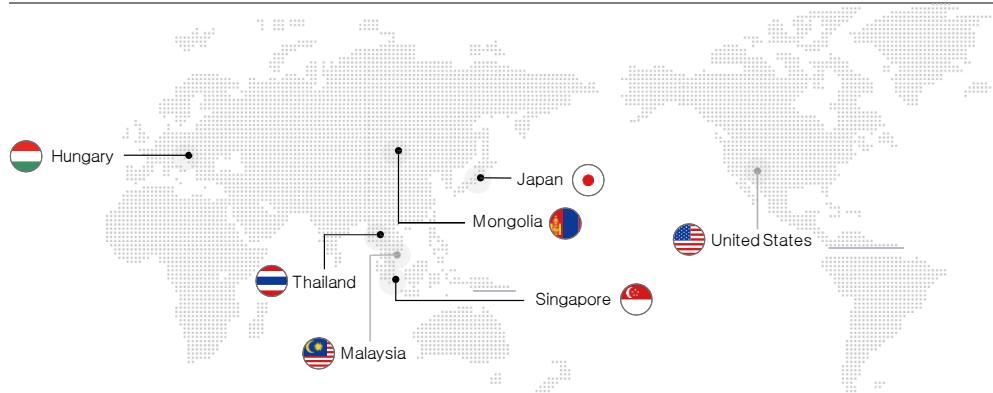
에이럭스는 이러한 기회를 기반으로 2025년 미국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 중이다. JV는 인증 대응, 현지화 R&D, AS 및 교육센터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거점으로, 복수의 B2B 고객사와 NDA 협의 및 사전 공급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Made in USA' 제품 라인업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지 입찰, AS 인프라 강화, 공공 파트너십 확대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미국에서 검증된 모델을**일본·동남아·유럽으로 확장 중**

또한, 미국 시장에서 검증된 모델은 일본·동남아·유럽 등 타 지역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세계 3대 드론 수요국 중 하나로 고령화에 따른 작업 대체, 지진·재난 탐사, 장비 교체 등 반복 수요가 존재하며, 에이럭스는 시제품 공급과 필드 테스트를 거쳐 본제품 수출 단계에 진입했다.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교육·농업·재난 대응용 수요가 늘고 있으며, 현지 맞춤 사양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몽골은 광활한 국토 특성상 재난 감시·물류용 드론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헝가리는 EU 규제 환경 속 교육·산업용 신규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

드론 수출은 평균 40~50%**고마진 구조**

향후 해외 매출 확대는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드론 수출은 원화 매출 대비 평균 40~50%의 고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JV 설립 이후 북미 사업부가 별도 손익 주체로 운영되면 해외 부문 영업이익 비중은 종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에이럭스는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적 공급자로서, 북미 JV를 중심으로 일본·동남아·유럽 시장 개척을 병행하며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해외 매출 성장, 안정적 수익성 강화, 전략적 제휴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핵심 투자포인트로 평가된다.

글로벌 진출 현황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멀티 응용 시장 확장과 플랫폼 수익 구조로의 전환 기대

에이럭스는 통합형 드론 플랫폼

기업을 지향

에이럭스는 해외 시장 확대와 더불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드론 활용 영역을 교육에서 정찰·보안·이벤트·스포츠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존 교육용 드론 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유통 네트워크를 토대로, 단순한 제품군 확장이 아닌 시장별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커스터마이징과 반복 매출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하드웨어 일회성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관제 플랫폼·구독형 콘텐츠를 포함하는 통합형 드론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교육: 교육 구독·재구매가 순환되는 매출 구조를 확립

교육 부문에서 에이럭스는 국내 2,700여 개 초·중등학교에 드론 및 코딩 커리큘럼 키트를 공급한 경험을 기반으로, 교사 연수·방과후 수업 캠프형 교육으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지역에서 정기 납품 및 커리큘럼 패키지 계약을 체결, 1회 납품 → 연간 유지보수·교육 구독 → 차년도 재구매로 이어지는 순환형 매출 구조를 확립했다. 향후에는 AI 비행 알고리즘 학습, 교내 드론대회, 실시간 제어 등 고부가 서비스가 결합된 교육용 드론 에코시스템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

정찰·스마트시큐리티: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서비스 매출 비중 확대할 계획

정찰·스마트시큐리티 분야에서는 2024년부터 영상전송·자율비행 알고리즘을 탑재한 소형 정찰 드론을 미국 및 국내 보안 기업에 공급할 수 있게 추진 중이다. 해당 기체는 도시 순찰·공공시설 감시·주택 방범 등 실시간 모니터링 수요에 대응하며, CCTV 대비 공간 커버리지·반응 속도·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나아가 클라우드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하드웨어·관제 SW·데이터 서버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솔루션으로 제공, 장기 계약 및 서비스 매출 비중을 확대 중이다.

스포츠 이벤트: 드론 군집 제어 기술을 상용화해 드론 활용 시장에 진출

스포츠·이벤트 시장에서는 드론 군집 제어 기술을 상용화해 실내·야간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정밀한 연출이 가능한 초 소형 저소음 기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전시기획사와 시범 계약을 체결했고, 글로벌 드론쇼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특히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글로벌 드론쇼 시장에서 기업 광고·공연 행사·테마파크 등 고부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9월 전주시에서 열리는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주최 드론 축구 월드컵에 사용될 드론 축구공을 납품할 예정으로, 신규 스포츠 드론 시장 진출의 가시적 매출이 기대된다. 드론 활용 시장은 약 4,316억 원 규모로, 교육용 드론 시장(약 571억 원)의 7배 이상에 달하는 만큼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

다양한 응용 시장과 구독형 서비스로 확장해 기업가치 제고

에이럭스는 동일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용도별 알고리즘·센서 구성 변경을 통해 교육, 정찰·보안, 쇼·이벤트·스포츠까지 다중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척하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각 시장 진입 이후에는 운영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 유지보수, 콘텐츠 구독 등 고정 수익원으로 확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콘텐츠 기업 수준의 멀티플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에이럭스의 드론 생태계 구축 목표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1 2025년 상반기 실적 리뷰****2025년 상반기****매출 239억 원(YoY +0.2%),****영업이익 -55.4억 원(YoY 적자)**

에이럭스는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239.1억 원(YoY +0.2%), 영업이익 -55.4억 원(YoY 적자전환)을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Q25 매출액 111.8억 원(YoY +17.9%), 영업이익 -16.8억 원(YoY 적자전환), 2Q25 매출액 127.3억 원(YoY -11.4%), 영업이익 -38.6억 원(YoY 적자전환)을 시현하였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제품 69억 원(로봇 30억 원, 드론 37억 원, 기타 2억 원), 상품 20억 원, 용역(교육 서비스) 143억 원, 기타 7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각각 29%, 8%, 60%, 3%를 차지하였다. 제품 매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로봇 17억 원, 드론 11억 원, 기타 1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드론 매출은 1분기 9%에서 2분기 21%로 급증했으며, 하반기에는 해외 수출 확대와 산업용 드론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된다.

비용 측면에서는 1H25 매출원가가 172.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3% 증가했으며, 매출원가율은 72.3%로 19.5%p 상승하였다. 이는 2H25 출시 예정인 산업용 드론 신제품의 시제품 테스트 비용이 매출원가에 반영된 영향이다.

산업용 드론은 교육용 드론 대비 원재료 단가가 높아 구조적으로 원가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다만 2분기 원가율 급등은 신제품 시제품 테스트 비용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영향이 크며, 3분기에는 해당 비용 소멸 효과로 일부 개선이 예상된다. 4분기에는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원가율이 60%대로 회복할 전망이다.

1H25 판관비는 121.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1%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코스닥 상장 이후 조직 확장과 신규 사업개발을 위한 인력 충원이 이어지며 인건비가 증가했고, 해외 합작법인(JV) 설립 검토 및 신제품 연구개발 등 전략적 투자 비용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2 2025년 연간 실적 전망**2025년 연결 매출 671억 원,****영업이익은 46억 원(OPM****6.8%) 추정**

에이럭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671억 원(YoY +21.9%), 영업이익은 46억 원(OPM 6.8%) 수준으로 예상된다. 드론 사업부가 외형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R&D와 인력 확충 등 전략적 투자가 병행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제품 39%, 상품 7%, 용역 53%, 기타 1%이다. 제품 부문 매출은 총 264억 원(YoY +49.4%)이며, 세부적으로 로봇 70억 원(YoY +13%), 드론 184억 원(YoY +69%), 기타 10억 원(YoY +80%)으로 구성된다. 제품 매출의 절반 수준은 교육용 반복 납품에서 발생하며, 특히 국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심으로 안정적인 내수 매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드론 부문은 NDAA 규제에 따른 중국산 대체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해외 매출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주요 고객사와 약 140억 원 규모의 다년도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매출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더불어 2025년 하반기에는 실내용 보안 드론과 장거리 감시정찰용 멀티콥터 등 산업형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외형 성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형 드론은 평균 20%대의 높은 마진 구조를 갖추고 있어 향후 수출 비중이 확대될수록 수익성 개선 여지가 크다. 다만 올해는 신제품 초기 양산 비용과 R&D 집행 부담으로 단기적인 이익률은 다소 제한될 수 있으며, 본격적인 마진 개선 효과는 2026년 이후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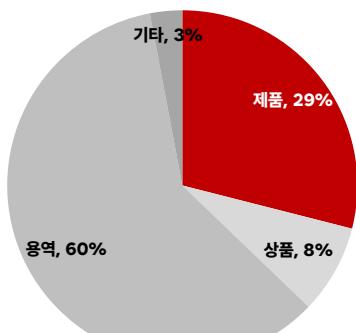
상품 부문 매출은 약 45억 원으로, 주로 교육용 교구재 판매가 차지한다. 단가와 수요 변동성이 제한적이어서 매출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용역 부문 매출은 약 357억 원으로, 공공 교육 프로젝트·방과후 학교 운영·커스터마이징 교육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계약 구조상 강사료와 교구재 단가가 고정되어 있어 원가 구조 개선 여지가 크지 않으며,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중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부문 매출은 약 5억 원으로, 일부 부품 판매와 기타 용역 수익이 포함된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향후 신규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매출원가가 약 410억 원(YoY +24.6%), 판관비가 약 215억 원(YoY +12.5%)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산업형 드론 개발, 해외 합작법인(JV) 설립 추진 등 전략적 사업 투자와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영업이익은 약 46억 원, 영업이익률(POM)은 6.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은 제품·시장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과도기로, 교육용 드론 중심의 안정적 매출 기반을 유지하면서 산업형 B2B 드론의 초기 수주와 수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시기다. 하반기에는 정찰용 VTOL, Security Drone, Quad 등 신제품 라인업이 출시될 예정이며, 일본 재난 대응·탐사용 소형 드론 공급, 동남아 현지 필드 테스트, 미국 드론쇼를 통한 레저형 및 감시정찰형 중형 드론 수출 개시 등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매출 성장률은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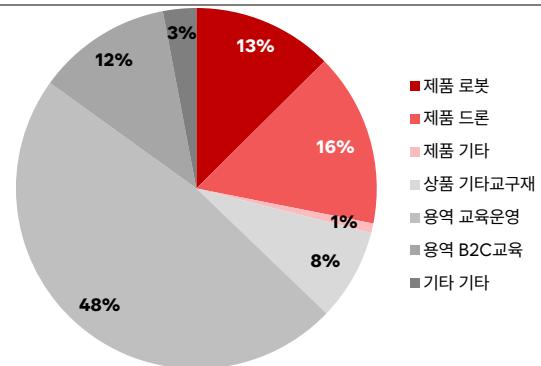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R&D 비용과 해외 거점 확충에 따른 투자 부담이 수익성을 제한하겠지만, 산업형 드론은 평균 20%대의 고마진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확대될수록 수익성 개선 여력이 커진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용 드론 대비 높은 원가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객단가 상승 효과가 반영되면서 전체 마진은 오히려 개선되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상반기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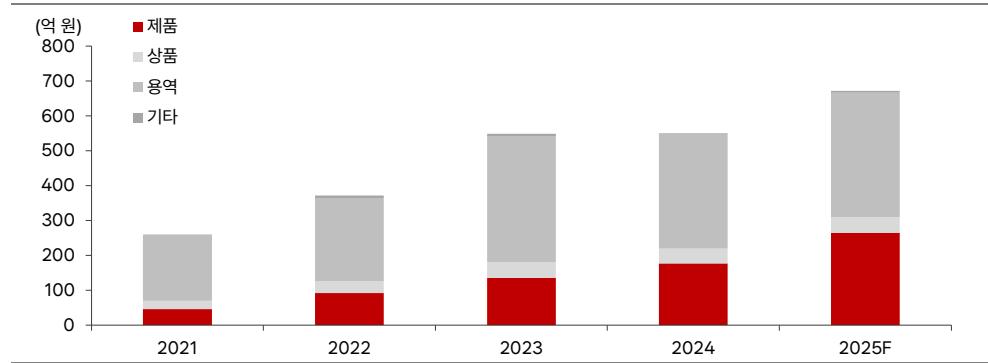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상반기 사업부문별 세부 제품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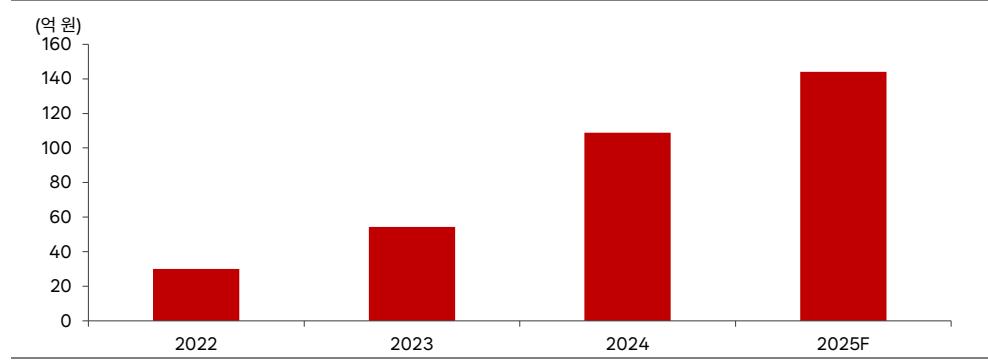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이럭스 연간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이럭스 드론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이럭스 하반기 출시 예정인 드론 신제품

제품						
품명	VTOL	Security Drone	Quad	Enter Drone	Swarm	Edu Drone
용도	감시 정찰 (장거리)	감시 정찰 (단거리)	감시 정찰 (중거리)	레저	드론쇼	교육용
무게	13.5~15.5Kg	200g	4.5~8Kg	785g	400~600g	54.8g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이럭스 실적 테이블

(단위: 억 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372	548	550	671
제품	91	135	177	264
상품	34	45	42	45
용역	239	361	330	357
기타	7	8	2	5
영업이익	12	50	30	37
영업이익률	3.3	9.2	5.5	5.6
지배주주순이익	19	40	28	34
지배주주순이익률	5.0	7.2	5.1	5.0
YoY 증감률				
매출액	42.8	47.6	0.4	21.9
제품	98.0	48.0	30.8	49.4
상품	45.9	31.5	-5.4	6.4
용역	25.2	51.0	-8.7	8.3
기타		4.9	-77.2	182.5
영업이익	-53.9	3092	-40.2	24.1
지배주주순이익	337.3	113.1	-28.7	19.8

자료: 에이럭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 글로벌 드론 시장 확장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

에이럭스는 2024년 11월 코스닥 상장 당시 산업형 드론의 글로벌 확장과 신규 응용 시장 진출을 핵심 성장 스토리로 제시했다. 증권신고서에는 2024년 연간 당기순이익 목표를 41억 원으로 설정하며, 두 자릿수 후반대의 매출 성장률과 한자릿수 중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을 전제하는 고성장 시나리오를 가정했고, 이러한 기대감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비교기업으로는 브이원텍(머신비전 검사장비)과 로보스타(산업용 로봇 제조)가 선정됐으며, 두 기업의 평균 PER 51.56배를 적용해 주당 평가가액은 15,591원으로 산출됐다. 이후 높은 기관 경쟁률을 기록하며, 에이럭스의 최종 공모가는 할인율을 적용한 공모가 밴드(11,500~13,500원)를 상회하는 16,000원에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2024년 실적은 매출액 550억 원(YoY + 0.4%), 영업이익 30억 원(YoY -40%), 당기순이익 28억 원(YoY -29%)으로 목표치와 괴리가 존재했다. 이는 공공기관 발주용역 예산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과 공장 증설, 신사옥 이전,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 등 일시적인 투자 비용 증가가 맞물리며 수익성을 압박했고, 상장 직후 주가 하락세로 이어졌다. 2025년 8월 11일 현재 주가는 11,440원으로 공모가 대비 약 28.5% 하락했으며, 상장 당시 50배 이상이었던 PER은 현재 약 2025년 기준 약 30배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럭스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견조하다.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소형 드론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양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NDAA 규제·‘Buy American’ 정책·중국산 대체 수요 확대라는 글로벌 구조적 성장 동력과 맞물린다. 또한 교육·공공 중심이던 사업 모델을 산업·방산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은 글로벌 사례와 궤를 같이한다. 프랑스의 Parrot은 소비자·교육용 드론에서 출발했으나 정부 조달망을 확보하며 산업·공공 영역으로 진입했고, 미국의 Skydio 역시 초기 소비자용 자율비행 드론에서 출발해 현재는 정부·군 조달 인증을 기반으로 산업·공공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에이럭스가 교육·공공 기반에서 산업형 B2B·방산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방산 드론 특화 기업들의 주가 흐름 역시 구조적 전환기를 보여준다. AeroVironment(AVAV)는 전술 드론 장기 수주와 국산 드론 생산 촉진 정책에 힘입어 연초 대비 주가가 두 배 이상 상승했고,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KTOS)는 무인 전투기·전술 드론 중심의 수주 확대와 차세대 무기체계 확장으로 90% 이상 올랐다. 호주의 Electro Optic Systems(EOS)도 드론 방어용 고출력 레이저 무기 계약으로 단기간에 40% 이상 급등했다. 이들 기업은 장기 공급계약과 고마진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멀티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 수혜가 곧 밸류에이션 레벨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에이럭스는 Parrot·Skydio 등 산업 확장형 피어와 성장 경로 측면에서 비교 가능하며, AVAV·KTOS·EOS와 같은 방산 특화 기업들의 멀티플은 밸류에이션 상단 구간을 제시하는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형 드론 매출 확대와 고마진 수출이 본격화되면, 에이럭스 역시 단순 교육·공공 기업을 넘어 글로벌 드론 밸류체인 내 전략적 플레이어로 리레이팅될 가능성성이 높다.

⚠ 리스크 요인

1 시장·정책 환경 변화 리스크

에이럭스의 매출 구조는 국내외 교육·공공 부문과 산업·방산 부문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특히 교육·공공 부문은 정부 정책과 예산에 높은 영향을 받는다. 국내 교육용 드론·로봇 시장은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2025년 AI 교육 강화 정책 등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형성했으나, 이 같은 제도적 수요는 정책 기조 변화 시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매년 약 1,000억 원 이상을 디지털 교육 기자재 예산으로 배정하는데, 이 중 15~20%가 드론·로봇 분야에 투입된다. 해당 예산 비중이 5%p만 하락해도 연간 50억~70억 원 규모의 수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규제·정책 리스크가 존재한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정치·외교 환경 변화 시 규제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중국 저가 제품의 재진입으로 가격 경쟁 심화 및 마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드론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제품 인증·등록·시험 절차에 따른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2 제품·부품 내재화 및 기술 경쟁 리스크

에이럭스는 핵심 부품(FC, 센서융합, 무선통신, 디자인 등)을 자체 개발·양산하는 기술 내재화 전략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초경량 FC(4g대) 설계·양산 능력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무게·성능·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술 고도화와 양산 체계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경쟁 우위가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 DJI, Skydio, Parrot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은 R&D 투자 규모와 특히 포트폴리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부품 설계·소프트웨어·AI 기반 비전 기술까지 통합하는 풀 스택(Full Stack)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DJI는 연간 R&D 투자 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하며, 자율비행·영상처리·데이터 분석까지 일원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전 기술·통합관제·AI 분석 알고리즘 등 미개발 분야에서 계획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 만약 FC·센서 등 주요 부품의 양산성·원가 경쟁력이 약화되면, 생산 차질과 수익성 하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3 해외 시장 진출유통 구조 리스크

에이럭스는 2024년 북미 수출액 48.7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5년 현재 북미 발주잔고만 약 20억 원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NDAA(국방수권법)와 H.R. 2864(중국공산당 드론 대응법) 등 규제 수혜로 성장 기회가 크지만, 유통 채널 안정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가 필수다. 현 시점에서 해외 매출은 북미 편중도가 높으며, 일본·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 수출은 대부분 시제품 또는 파일럿 단계에 그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대리점·교육기관·정부 프로젝트 연계 판매가 매출 확대를 주도하겠지만, 대형 프로젝트 의존도가 높아 수주 공백 시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물류비 변동·환율 리스크·수출 규제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 현지 법인·JV 설립 등 거점화 전략이 지연될 경우, Skydio·Parrot 등 현지 기업과의 경쟁에서 서비스·AS 속도, 현지 조달 비중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260	372	548	550	671
증가율(%)	N/A	42.8	47.6	0.4	21.9
매출원가	162	255	329	329	410
매출원가율(%)	62.3	68.5	60.0	59.8	61.1
매출총이익	99	117	220	222	261
매출이익률(%)	37.9	31.5	40.1	40.2	38.9
판매관리비	72	105	169	191	215
판관비율(%)	27.7	28.2	30.8	34.7	32.0
EBITDA	31	20	65	60	93
EBITDA 이익률(%)	11.8	5.4	11.9	10.9	13.8
증가율(%)	N/A	-34.5	222.8	-8.0	55.3
영업이익	27	12	50	30	46
영업이익률(%)	10.2	3.3	9.2	5.5	6.8
증가율(%)	N/A	-53.9	309.2	-40.2	52.5
영업외손익	-20	12	-2	1	1
금융수익	0	21	17	5	5
금융비용	21	13	16	3	3
기타영업외손익	1	4	-2	-1	-1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7	24	49	31	47
증가율(%)	N/A	252.1	103.6	-36.0	49.8
법인세비용	2	5	9	3	5
계속사업이익	5	19	40	28	4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5	19	40	28	41
당기순이익률(%)	1.8	5.2	7.2	5.1	6.2
증가율(%)	N/A	311.8	104.4	-28.7	46.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4	19	40	28	41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212	220	278	466	521
현금성자산	128	94	124	327	368
단기투자자산	6	40	40	10	0
매출채권	53	44	47	52	53
재고자산	21	34	51	57	69
기타유동자산	3	8	16	19	30
비유동자산	50	87	93	162	168
유형자산	20	30	34	45	52
무형자산	14	29	24	34	34
투자자산	0	0	0	0	0
기타비유동자산	16	28	35	83	82
자산총계	262	307	371	628	689
유동부채	60	90	76	44	65
단기차입금	20	15	10	0	0
매입채무	8	8	2	2	2
기타유동부채	32	67	64	42	63
비유동부채	205	198	8	16	14
사채	4	2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201	196	8	16	14
부채총계	265	287	84	59	79
지배주주지분	-6	18	287	569	610
자본금	15	15	23	27	27
자본잉여금	21	21	233	480	480
자본조정 등	0	5	14	16	16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42	-23	16	45	86
자본총계	-3	20	287	569	610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	44	31	13	87
당기순이익	5	19	40	28	41
유형자산 상각비	4	7	13	26	43
무형자산 상각비	0	1	2	4	4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6	19	-42	-41	-2
기타	25	-2	18	-4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	-64	-15	-27	-4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	-13	-10	-20	-50
기타	1	-51	-5	-7	7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6	-14	15	216	-3
차입금의 증가(감소)	9	-6	-4	-10	-3
사채의증가(감소)	-1	-3	-3	-1	0
자본의 증가	100	0	5	236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2	-5	17	-9	0
기타현금흐름	0	0	0	1	-0
현금의증가(감소)	100	-34	30	203	41
기초현금	28	128	94	124	327
기말현금	128	94	124	327	368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0.0	0.0	0.0	50.9	35.8
P/B(배)	N/A	0.0	0.0	2.8	2.4
P/S(배)	0.0	0.0	0.0	2.6	2.2
EV/EBITDA(배)	3.2	4.5	N/A	21.7	12.3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43	164	346	236	304
BPS(원)	-51	161	2,459	4,208	4,477
SPS(원)	2,664	3,282	4,799	4,595	4,931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73.2	299.4	26.0	6.6	7.0
ROA	1.8	6.8	11.7	5.6	6.3
ROI	N/A	14.5	41.5	14.1	22.4
안정성(%)					
유동비율	355.7	245.1	366.5	1,065.8	806.3
부채비율	-8,593.5	1,455.6	29.3	10.5	12.9
순차입금비율	-3,091.5	446.2	-48.0	-53.8	-55.6
이자보상배율	4.5	0.9	3.2	10.7	15.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0	1.3	1.6	1.1	1.0
매출채권회전율	4.9	7.6	12.0	11.1	12.7
재고자산회전율	12.1	13.4	12.9	10.2	10.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에이럭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8.14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비(非)중국산 드론 수혜주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